

고용동향 브리프

January 2018 **01**

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
2017년 고용동향

02 이달의 통계포커스
2017년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

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

2017년 고용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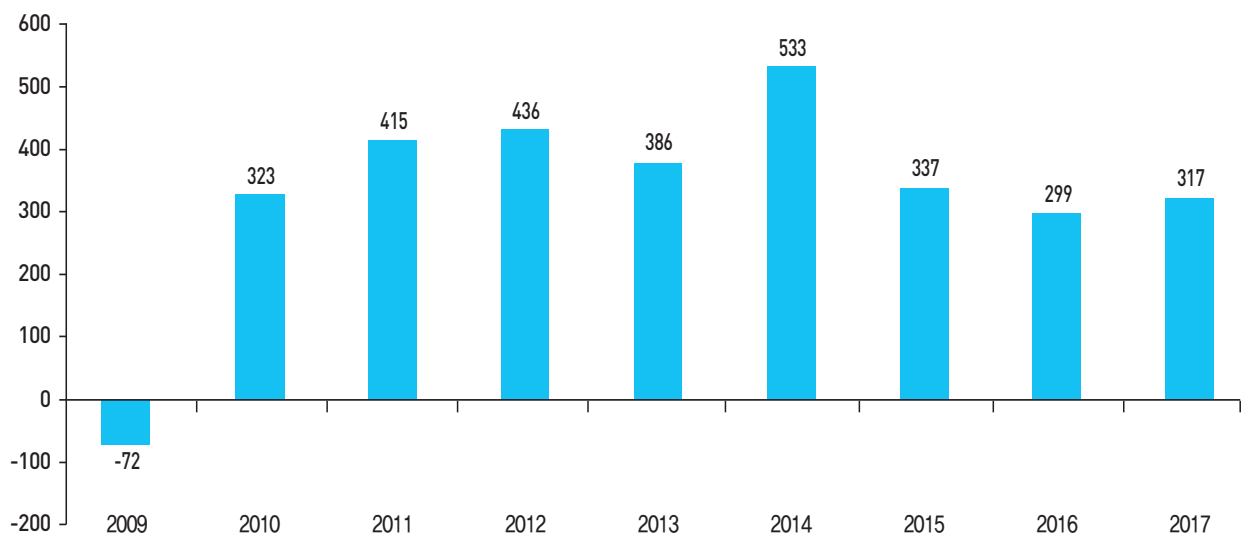
정재현*

I. 고용동향 추이

- 2017년 취업자 수는 2,655만 2천명으로 평균 31만 7천명 증가
 - 연평균 29만 9천명 증가했던 2016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, 2011년 ~2014년 취업자 수 증가 추세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
 - 53만 3천명이 증가했던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감소
 -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음

[그림 1] 취업자 수 증감 추이(2009-2017)

(단위: 천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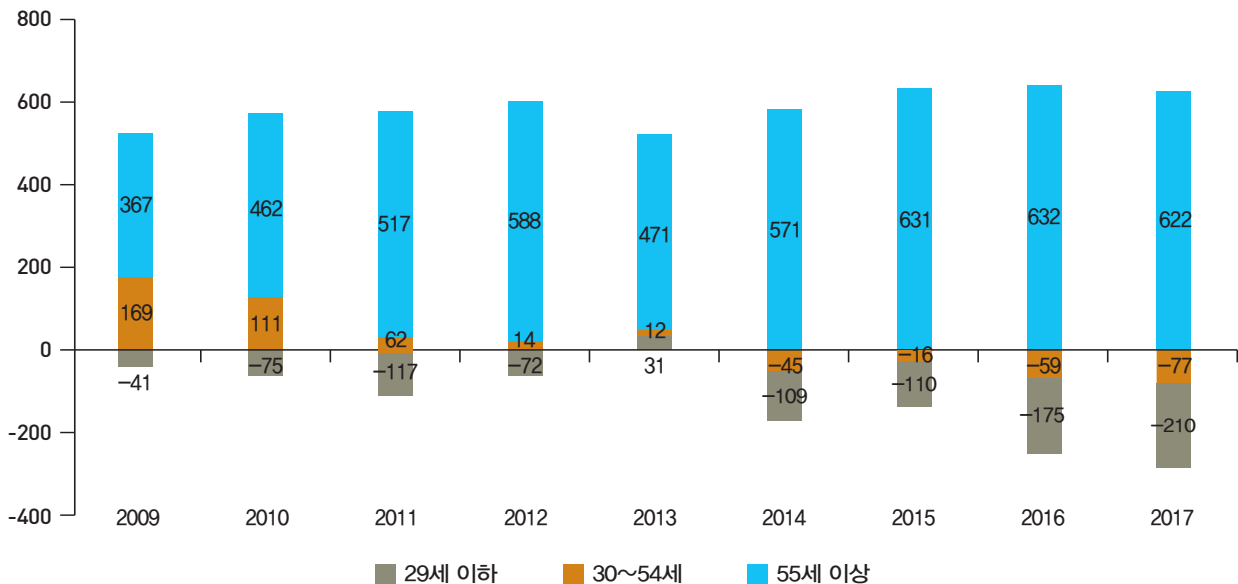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*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 (jhchung@keis.or.kr)

- 취업자 수 증가의 둔화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핵심노동연령층인 30~54세 인구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하기 때문
 - 30~54세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은 연령대로 2017년에 연평균 21만 명이 감소
 - 반대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5세 이상 인구는 62만 2천명이 증가
 - 29세 이하 청년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4세 이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됨
 - 54세 이하 인구 감소는 향후 노동 수요측 요인이 개선되더라도 고용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

[그림 2]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(2009~2017)

(단위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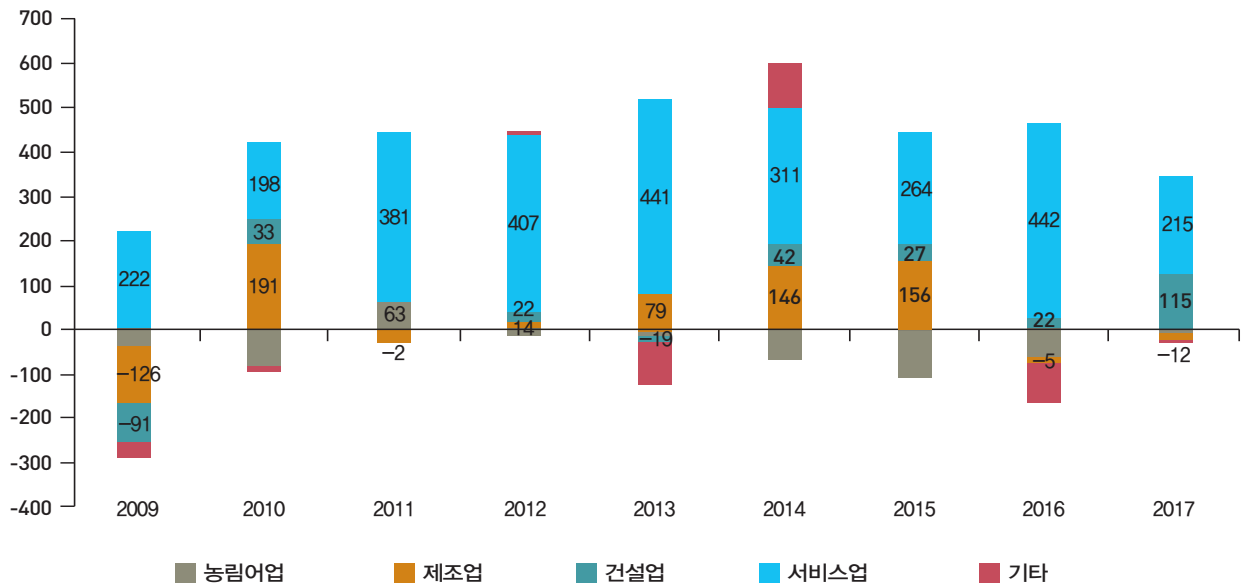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노동수요 측면에서 조선업 구조조정,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그리고 내수시장 성장 둔화가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둔화시킴.
 -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해양플랜트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
 -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6년에 5천명이 감소하고 2017년에는 1만 2천명 감소
 - 2016년에 연평균 44만 2천명까지 증가했던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7년에 연평균 21만 5천명 증가하는데 그침
 - 한편 건설업은 호황으로 2014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연평균 11만 5천명이 증가

[그림 3]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(2009~2017)

(단위 : 천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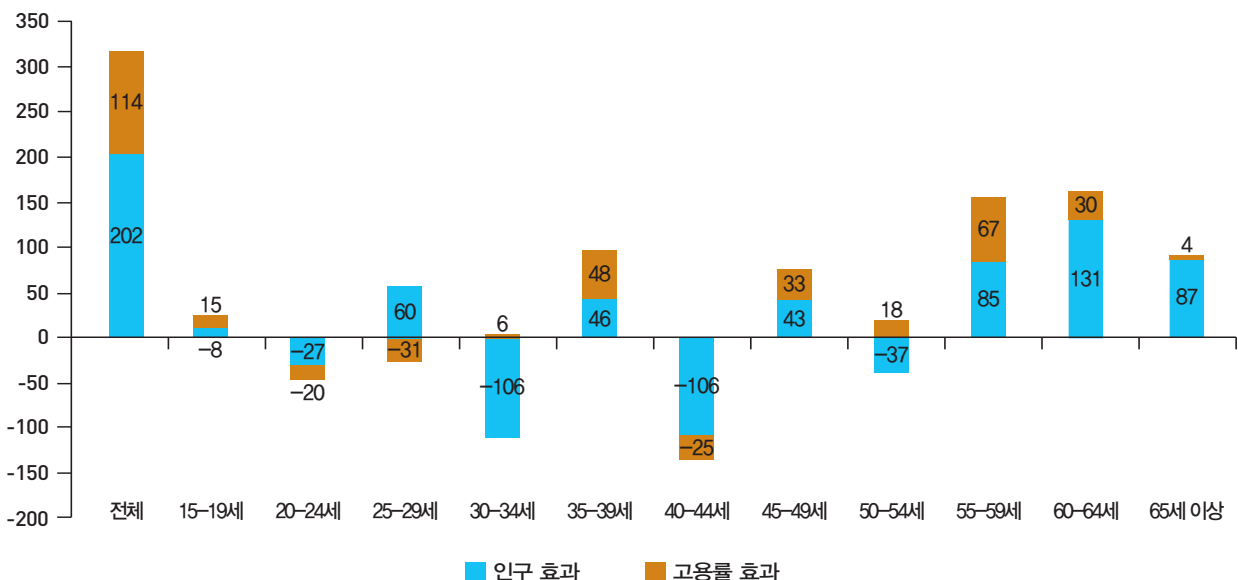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II. 2017년 고용동향 특성

- 30대 초반·40대 초반 남성의 취업자 감소에 따른 취업자 증가 둔화
 - 2017년 동안 평균 취업자 증감을 노동공급 효과인 인구 효과와 노동수요 효과인 고용률 효과로 분해하면, 인구 효과로 11만 4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 효과로 20만 2천명 증가
 - ▶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은 30~54세는 인구효과로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짐
 - ▶ 특히 30대 초반(30~34세)을 비롯해 40대 초반(40~44세)의 인구 감소 효과가 10만 명 이상이었고 고용률 효과도 30대 초반이 6천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40대 초반은 2만 5천명이 감소
 - ▶ 반대로 30대 후반(35~39세)과 40대 후반(45~49세)은 인구 증가와 고용률 효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각 연령대 초반의 취업자 감소가 후반의 취업자 증가 보다 커서 취업자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[그림 4] 2017년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요인

(단위 : 천 명)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– 성별·연령대별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변동을 보면 취업자 증가는 여성이 주도

- ▶ 54세 이하 연령층에서 여성이 16만 명 감소하여 12만 5천명 감소하는 남성보다 감소인구가 더 많지만 취업자 수는 반대로 54세 이하 여성이 5천명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가 9만 명 감소
- ▶ 전체적으로 30대 후반과 60대 초반을 제외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은 여성이 더 높고 이탈은 더 낮음
- ▶ 30대 초반과 40대 초반 남성 취업자의 높은 감소는 핵심노동연령층의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음

〈표 1〉 생산가능인구·취업자 전년대비 증감

(단위 : 천 명)

연령대	생산가능인구 증감			취업자 증감		
	남자	여자	합계	남자	여자	합계
15~19세	-39	-65	-104	4	2	6
20~24세	-50	-10	-60	-29	-18	-47
25~29세	58	29	87	7	22	29
30~34세	-60	-83	-143	-70	-30	-101
35~39세	35	27	62	49	46	95
40~44세	-73	-63	-135	-71	-59	-130
45~49세	26	27	53	33	43	76
50~54세	-25	-23	-48	-13	-6	-19
55~59세	56	64	120	74	80	154
60~64세	113	106	220	107	56	163
65세 이상	133	149	283	32	58	91
15~54세	-127	-161	-287	45344	1	-91
55세 이상	302	320	622	214	195	408
합계	176	159	335	122	195	3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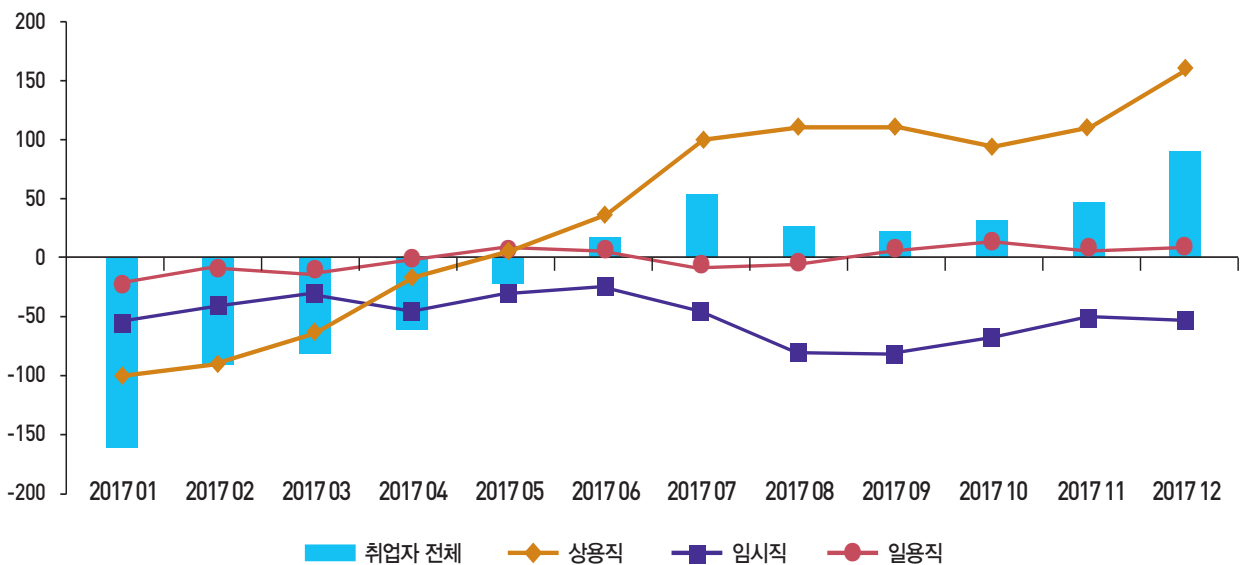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■ 제조업의 상반기 부진과 하반기 회복 그리고 서비스업의 둔화

- 2017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만 명이 감소하기 시작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5월까지 감소폭이 줄어들다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
 - ▶ 제조업 상용직이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9만9천 명 감소로 시작해서 4월까지 그 감소폭이 줄어들다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동을 주도
 - ▶ 임시직은 2017년 전체에 걸쳐 감소했으며, 하반기에 나타난 임시직 감소폭 증가는 하반기 상용직 증가를 상쇄시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을 줄임
 - ▶ 일용직은 2017년에 걸쳐 감소와 증가가 반복

[그림 5] 제조업 임금 근로자 월별 증감 추이

(단위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제조업의 피보험자수 감소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주도했으나 전년 대비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427명 증가
 - ▶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 대비 41,649명이 감소하여 21.5% 감소
 - ▶ 그 외 섬유제품 제조업(1,649명 감소)과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(2,093명 감소)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(1,619명 감소)에서 피보험자가 1,000명 이상 감소

- ▶ 한편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(11,467명 증가), 식료품 제조업(9,084명 증가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6,690명 증가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,964명 증가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3,655명 증가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2,371명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4,459명 증가)에서 피보험자가 증가

〈표 2〉 제조업 피보험자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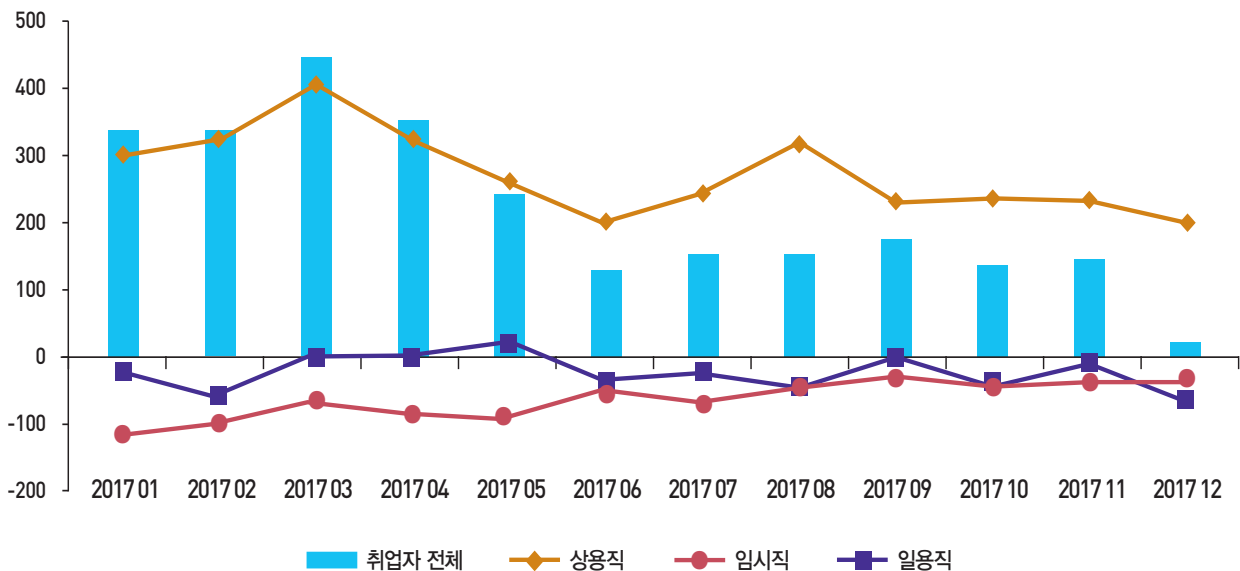
산업	2016	2017	증감	증감률
제조업 전체	3,575,727	3,576,154	427	0.0
10 식료품 제조업	251,049	260,133	9,084	3.6
11 음료 제조업	27,623	27,346	-278	-1.0
12 담배 제조업	2,350	2,559	208	8.9
13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	109,484	107,835	-1,649	-1.5
14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68,053	65,961	-2,093	-3.1
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23,962	23,718	-245	-1.0
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제외	32,002	32,411	409	1.3
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55,539	56,396	857	1.5
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64,632	64,468	-164	-0.3
19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6,420	16,762	343	2.1
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26,137	232,826	6,690	3.0
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70,646	74,302	3,655	5.2
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206,172	208,542	2,371	1.1
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94,855	95,324	469	0.5
24 1차 금속 제조업	115,173	113,553	-1,619	-1.4
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96,325	297,054	729	0.2
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518,621	519,243	621	0.1
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97,679	102,137	4,459	4.6
28 전기장비 제조업	204,079	205,916	1,836	0.9
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420,184	431,651	11,467	2.7
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96,544	400,204	3,660	0.9
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193,943	152,294	-41,649	-21.5
32 가구제조업	27,751	28,797	1,045	3.8
33 기타 제품 제조업	56,504	56,725	221	0.4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고용보험DB

- 서비스업은 2017년 1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대비 20만 명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점차 증가폭이 둔화되어 1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2만 명이 증가
- ▶ 상반기에 서비스업 상용직이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서비스업도 상용직의 변동이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을 주도
- ▶ 임시직은 1월 약 12만여 명 감소를 시작으로 2017년 내내 감소했으며 하반기에 월 감소폭이 월 4만 명 수준에서 유지

[그림 6] 서비스업 임금 근로자 월별 증감 추이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전년 동기대비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7만2천 명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4만 5천명), 교육서비스업(3만 8천명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3만 7천명) 순으로 증가
- ▶ 취업자 감소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(2만 3천명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1만 5천명), 숙박 및 음식점업(1만 2천명), 운수업(1만 1천명) 순서

〈표 3〉 서비스업 취업자 전년 동기대비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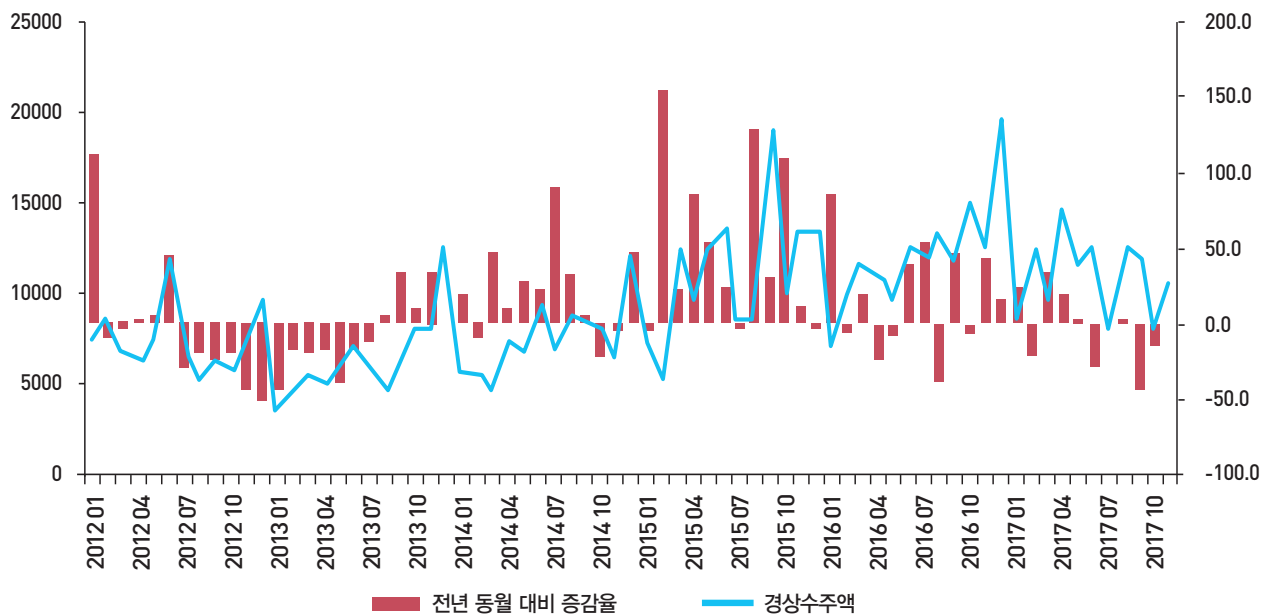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)

산업	2016	2017	증감	증감률
도매 및 소매업	4,178	4,196	18	0.4
운수업	1,413	1,401	-11	-0.8
숙박 및 음식점업	2,791	2,779	-12	-0.4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858	848	-10	-1.2
금융 및 보험업	842	819	-23	-2.7
부동산업 및 임대업	635	681	45	7.2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,184	1,179	-5	-0.4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1,482	1,481	-2	-0.1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1,129	1,167	37	3.3
교육서비스업	2,062	2,100	38	1.8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2,098	2,170	72	3.4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506	512	6	1.2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1,416	1,400	-15	-1.1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[그림 7] 건설수주액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

(단위 : 십억 원, %)



자료: 통계청, 건설경기동향조사

– 2017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에서 건설업 취업자가 연평균 11만 명이 증가한 이례적인 특성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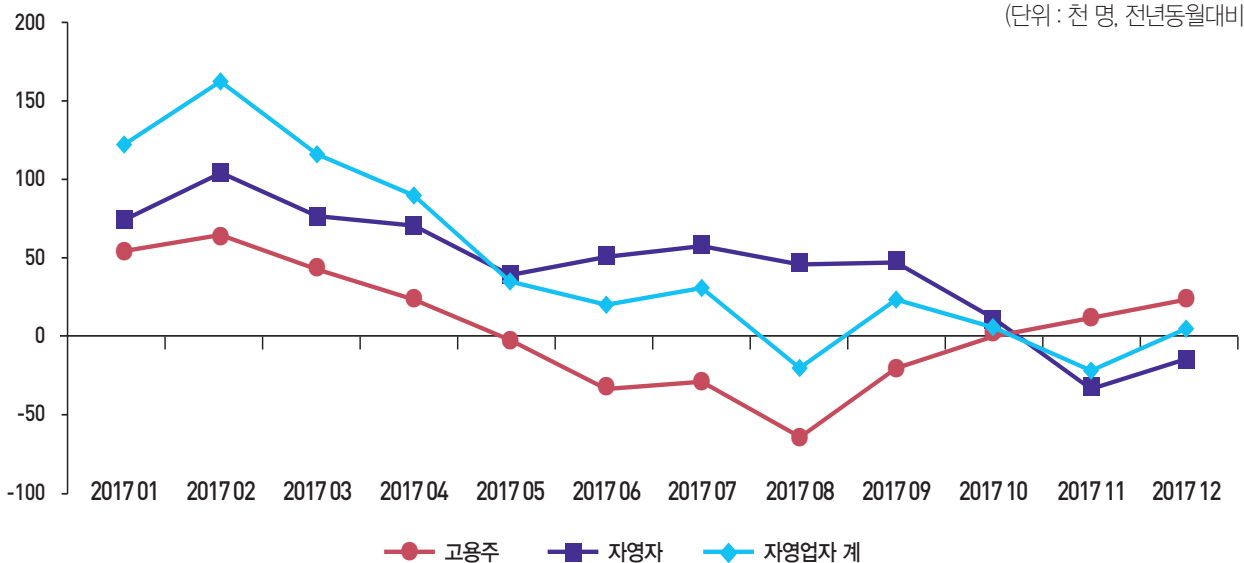
- ▶ 건설경기동향조사를 보면,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체가 주문받은 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5년 9월과 2016년 12월은 수주액이 19조 이상을 기록
- ▶ 하반기 공정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, 2015년과 2016년에 수주 받은 건설물량이 2017년에 하반기 공정에 들어가 건설인력 수요가 급증 것으로 보임

■ 자영업자 증가폭 둔화

- 1월 12만명 이상 증가로 시작한 자영업자 증가는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
- ▶ 고용주와 자영자 모두 3월부터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, 고용주는 5월부터 9월까지 감소
- ▶ 1월 이후 고용주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이것이 회복으로 전환된 것인지는 미지수
- ▶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10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

[그림 8] 자영업자 월별 증감 추이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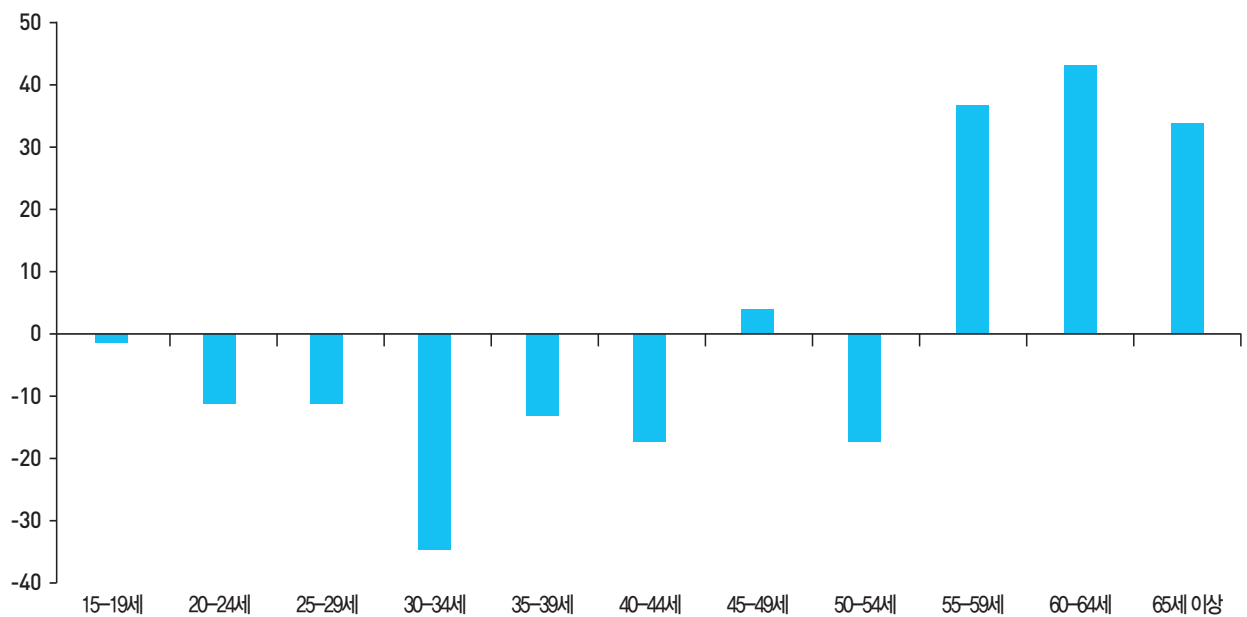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둔화가 두드러졌던 하반기의 자영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54세 이하 연령층이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영업자가 증가
- ▶ 특히 30대 초반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 40대 초반과 50대 초반의 감소폭이 높음

[그림 9] 연령별 하반기 자영업자 증감

(단위: 천 명, 전년 동기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전년 대비 자영업자는 4만 7천명 증가

- ▶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(2만 명 감소), 운수업(1만 4천명 감소), 교육 서비스업(1만 2천명 감소)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3천명 감소)에서 감소
- ▶ 자영업자가 증가한 주요 산업은 농업, 임업 및 어업(2만 6천명 증가), 숙박 및 음식점업(2만 7천명 증가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1만 1천명 증가)

- ▶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자영업자가 감소하여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
- ▶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자영업자가 증가하여 임금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

〈표 4〉 자영업자 전년 동기대비 증감

(단위 : 천 명)

	2016	2017	증감	증감률
A 농업, 임업 및 어업	914	940	26	2.9
C 제조업	425	424	-1	-0.3
F 건설업	405	413	7	1.8
G 도매 및 소매업	1,272	1,252	-20	-1.6
H 운수업	635	621	-14	-2.2
I 숙박 및 음식점업	659	687	27	4.1
J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79	76	-3	-3.6
K 금융 및 보험업	34	39	5	15.0
L 부동산업 및 임대업	181	187	6	3.6
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45	149	4	2.8
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66	68	2	3.4
P 교육 서비스업	381	369	-12	-3.3
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81	82	2	2.1
R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135	144	9	6.6
S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479	489	10	2.1
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	16	125	0	-2.9
합계	5,916	5,963	47	0.8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III. 결론

- 2017년 취업자 수는 2016년에 이어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둔화 요인은 다음과 같음
 - ▶ 노동공급측면에서 30대 초반 · 40대 초반의 인구감소가 핵심노동연령층 인구감소를 주도
 - ▶ 자영업자도 55세 이상 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54세 이하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감소추세에 있음
 - ▶ 노동수요 측면에서 상반기에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 둔화가 회복세를 상쇄
- 2017년 하반기부터 회복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세계경제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에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 둔화가 2018년 1/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 방안이 요구
 - ▶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둔화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음
 - ▶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함
- 2015년과 2016년에 전년 동기대비 높은 건설수주 증가율로 2017년 건설업은 호황이 지속되었고 취업자 수도 이례적으로 증가
 - ▶ 2017년부터 전년 동기대비 건설수주는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, 2018년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
이달의 통계포커스



2017년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

연보리*

- 2017년 취업자는 2,655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1만 7천 명(+1.2%) 증가
 –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
- 산업별로는 건설업(+11만 5천 명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+6만 2천 명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+5만 2천 명), 교육 서비스업(+4만 8천 명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+4만 5천 명) 등에서 주로 증가
 – 운수업(-2만 1천 명), 금융 및 보험업(-1만 4천 명), 제조업(-1만 2천 명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-1만 1천 명) 등은 감소

* 한국고용정보원 e현장행정지원팀 연구원(seethekite@keis.or.kr)

〈표 1〉 산업별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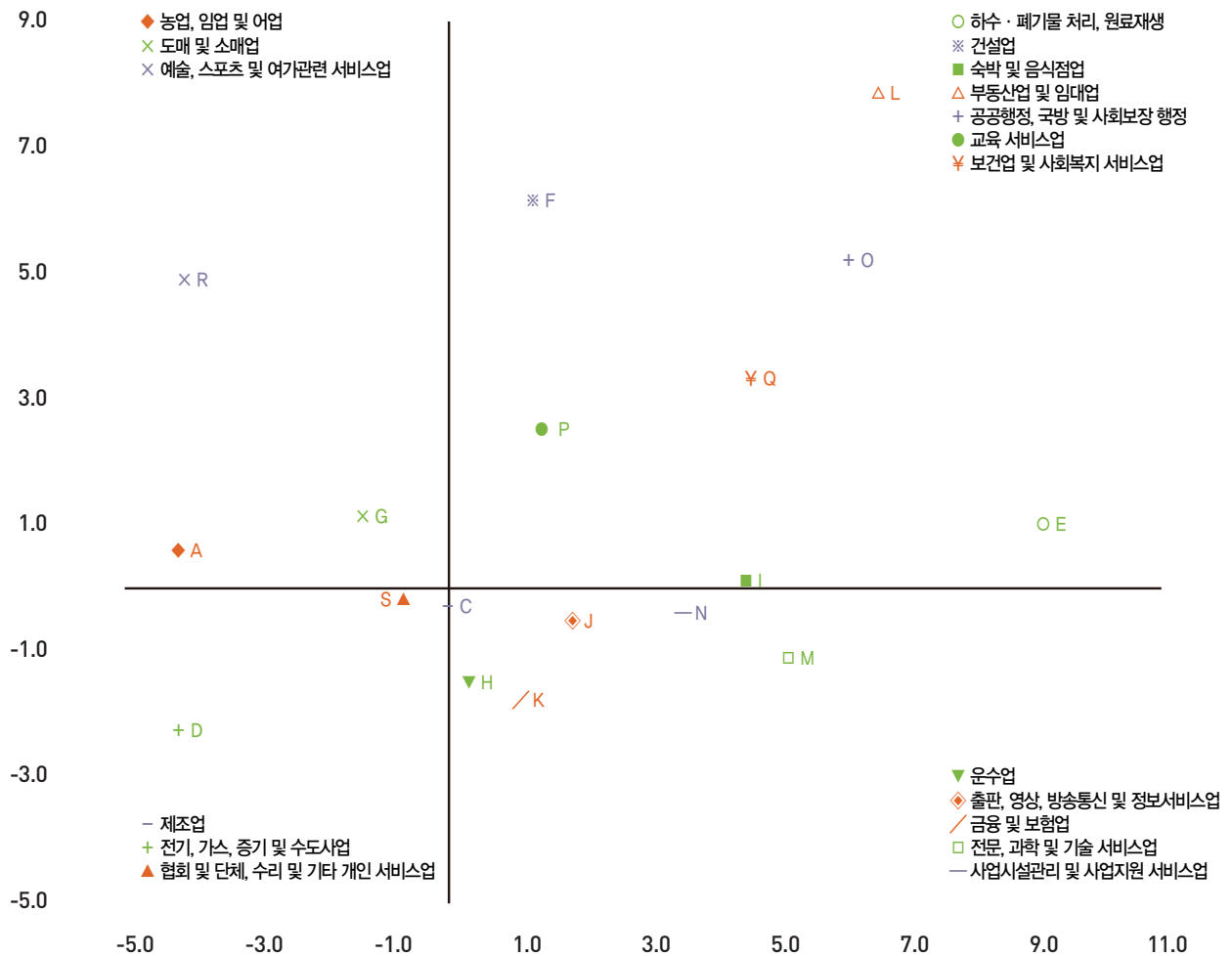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전년 대비)

	2014년		2015년		2016년		2017년	
		(증감)		(증감)		(증감)		(증감)
합계	25,599	(533)	25,936	(337)	26,235	(299)	26,552	(317)
A 농업, 임업 및 어업	1,452	(-68)	1,345	(-107)	1,286	(-59)	1,294	(8)
B 광업	13	(-3)	14	(1)	19	(5)	22	(4)
C 제조업	4,330	(146)	4,486	(156)	4,481	(-5)	4,469	(-12)
D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83	(-7)	93	(10)	89	(-4)	87	(-2)
E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	87	(14)	88	(1)	96	(8)	97	(1)
F 건설업	1,796	(42)	1,823	(27)	1,845	(22)	1,959	(115)
G 도매 및 소매업	3,792	(132)	3,783	(-9)	3,729	(-54)	3,772	(43)
H 운수업	1,407	(-6)	1,409	(2)	1,412	(3)	1,391	(-21)
I 숙박 및 음식점업	2,098	(127)	2,179	(81)	2,277	(98)	2,280	(3)
J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714	(22)	772	(58)	786	(14)	782	(-4)
K 금융 및 보험업	837	(-27)	789	(-48)	796	(7)	782	(-14)
L 부동산업 및 임대업	508	(23)	535	(27)	570	(36)	615	(45)
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,025	(3)	1,048	(23)	1,102	(54)	1,090	(-11)
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1,180	(7)	1,249	(69)	1,293	(44)	1,288	(-5)
O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957	(-9)	936	(-21)	993	(57)	1,045	(52)
P 교육 서비스업	1,807	(59)	1,818	(11)	1,846	(28)	1,893	(48)
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1,693	(139)	1,770	(77)	1,851	(82)	1,913	(62)
R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394	(2)	424	(30)	406	(-18)	426	(20)
S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1,299	(-13)	1,277	(-22)	1,272	(-5)	1,270	(-2)
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	116	(-56)	82	(-34)	69	(-13)	64	(-5)
U 국제 및 외국기관	14	(7)	18	(4)	16	(-2)	12	(-5)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[그림 1] 지난 2년간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(2016년~2017년)

(단위 : % 전년 대비)



주: 1) 가로축(2016년), 세로축(2017년)

2) A. 농업, 임업 및 어업, B. 광업, C. 제조업, D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, E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, F. 건설업, G. 도매 및 소매업, H. 운수업, I. 숙박 및 음식점업, J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K. 금융 및 보험업, L. 부동산업 및 임대업, M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N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O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, P. 교육 서비스업, Q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T.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, U. 국제 및 외국기관

3) 규모가 작아 증감률 변동이 심한 광업,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, 국제 및 외국기관은 표기 제외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- 2016~2017년 계속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
 - 2017년 취업자 증가분의 50.8%(16만 1천 명)를 차지
 -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2016년 증가로 전환 후 2년 연속 증가
 -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년 연속 증가했으나 2017년은 전년 대비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

- 2016년엔 증가했으나 2017년에 감소로 전환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 - 2014년부터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
 - 전년 대비 7천 명 증가한 2016년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
 - 운수업과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

- 2016년에 감소했으나 2017년 증가로 전환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
 -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5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 들어 증가로 전환(+4만 3천 명)
 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1만 8천 명 감소한 2016년을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음

- 2016~2017년 계속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과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
 - 전년 대비 1만 2천 명 감소한 제조업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 상반기까지 감소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
 -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감소폭이 줄어들음

- 서비스업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증감 추세가 구분됨
 - 농림어업과 광업은 전체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남
 - 제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소하였고, 건설업은 2017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취업자 수 증가
 - 서비스업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데, OECD(2000)의 서비스업 분류 기준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

〈표 2〉 서비스업 분류

	생산자서비스업	유통서비스업	개인서비스업	사회서비스업
하위산업 ¹⁾	- 금융 및 보험업 - 부동산업 및 임대업 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	- 도매 및 소매업 - 운수업 -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	- 숙박 및 음식점업 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-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-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- 교육 서비스업 -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- 국제 및 외국기관
2017년 취업자 중 차지하는 고용 비중 ²⁾	14.2%	22.4%	15.0%	18.3%
평균 비중 (2014년~2016년)	14.1%	22.9%	14.9%	17.6%

주: 1) 9차 산업 대분류 기준

2) 각 서비스업 분류에 속하는 산업 취업자 수를 더하여 당해의 취업자 수로 나눔

자료: OECD(2000). p.83을 참고하여 재구성

- 생산자서비스업은 생산활동의 중간투입재 역할을 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도 볼 수 있음
 - 고숙련 근로자가 중심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산업
 - 금융 및 보험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은 2014년부터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이 감소추세에 있음
- 도매 및 소매업, 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유통서비스업은 재화, 지식 및 사람을 이동하는 기능을 함
 - 고용조건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모두 존재하며, 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
 - 운수업과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
 - 2017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3년 평균보다 작음
- 개인서비스업은 가계에 최종 소비를 제공하며, 시장과 가계 간 대체가 가능하여 노동수요가 노동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함
 - 저숙련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중심
 -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17년 전년 대비 3천 명 증가하며 전체 산업에서 개인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으나 지난 6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
-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업은 가계에 최종 소비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시장적 성격을 가짐
 - 교육/의료분야에서 고학력을 요구하나 그 외 분야는 미숙련 근로자가 많음
 - 여성 비중이 높고, 복지국가규모에 영향
 - 사회서비스업이 지난 몇 년간 취업자 증가를 뒷받침해왔으나 최근 그 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하는 경향

참고문헌

OECD(2000), "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"

고용동향
브리프

01

